



## 서른세번째 이야기

### 믿음에서 믿음으로

[ 2020 ON-Line 온비아 졸업 후기 ]



저는 솔직하게 BEE가 어떤 취지와 목적으로 교육을 한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먼저 수강한 친구가 성경 말씀 한 줄 한 줄을 자세하게 배운다는 말에 용감하게 신청했습니다. 성경통독 수업을 들었었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더 공부하고 싶고 더 깊은 뜻을 알고 배우고 싶은 생각이 컸던 거 같습니다. 아마 BEE 교육과정을 미리 알았더라면 저는 절대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부터 어렵고 뭐가 뭔지도 몰랐지만 사도 바울의 삶과 그의 사역을 깊이 배우며 성경에의 이해를 넓힐 수 있었고, 부끄럽지만 그동안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해왔던 터라 복음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끝내고 5년 이상 알고 지내던 집사님의 친정어머니 삶의 마지막에서 복음을 전하러 병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그동안 BEE에서 배웠던 것을 실습하는 순간이었고, 아마 여기서 BEE 세미나를 듣지 않았더라면 갈까 말까 고민하고 망설였을지도 모르지만, 예전 교회 목사님께 연락하여 그 목사님을 모시고 가면서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사명감으로 갔던 것

같습니다. 예전의 저라면 부끄럽고 많이 망설였고, 오래전 그 시간에 딸의 종합병원 예약이 되어 있어서 핑계 대고 안 갈 수도 있었지만 BEE 세미나를 들은 후 그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당연한 사명이고 떨리고 감사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심방 후 이틀 앓다가 돌아가셨고 저에게는 BEE 세미나 후 실습의 기회를 주신 것 같아 떨리는 귀한 경험을 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알게 된 귀한 경험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수업에서 학생 중에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저는 선교사님을 그렇게 가까이에서 만나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저 같은 정말 평범한 엄마였고 옆집 친구 같은 모습에 많이 놀랐습니다. 그동안 선교사님은 뭔가 대단해 보이고 엄청 홀리하고 나오는 완전 다른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와 같이 사춘기 자녀를 걱정하고 함께 점심을 먹으며 평범한 모습에 놀라고 있었는데 그 선교사님은 예상보다 빠르게 사역지로 떠나게 되셔서 갈라디아서만 함께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사역지로 떠나시는 선교사님을 보면서 선교헌금이라도 해야 되나, 출다는 말에 전기장판이라도 사드려야 하나, 속으로만 생각하고 또 소심하고 쑥스럽고

부끄러워하는 성격에 그냥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그 선교사님과 헤어지고 몇 달 후에 로마서 수업 예습을 하고 있었는데, 교재 내용에 선교를 위해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해야만 한다는 말씀을 읽는 그 순간에 갑자기 카톡이 왔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선교지에서 잘 지내고 있다는 안부의 특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선교사님께 계좌번호 알려달라고, 이런 이유에서 저는 선교헌금을 안 할 수가 없다고 특을 보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제가 공부하고 있는 것을 다 지켜보시고 어느 문장을 읽고 있는지도 다 보고 계시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이 놀라운 경험을 친구에게 말했더니 친구도 자꾸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님을 도우라는 마음을 주신다며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고 했고 그 친구의 친구로 계속 선교 헌금이 이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일하심에 놀라고 신기하기도 하고 감사할뿐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BEE 세미나가 한 학기 쉬다가 갑자기 한다는 말에 마음의 준비도 안 되고, 애들도 학교를 안 가고 있고, 또 숙제에, 시험에, 과제에 하기 귀찮고, 하기 싫은 마음이 컸습니다. 처음 수업 몇 번은 하지 말까 망설이고 포기할까도 생각했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은 제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갈급함과 내 안의 한계의 문제점을 알게 하였고 수업을 하고 나면 그동안 몰랐던 것을 알게 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가장 위로가 됐던 점은 믿음은 점진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인데, 늘 제 자신에 대한 영적 패배감과 정죄감에서 괴로워하고 있었을 때 갑자기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룰 수 없는 것이고 믿음의 훈련을 거쳐 점진적으로 이루어 나가야 하는 생각에 많은 위로가 되었고 고난에 대한 저의 이해를 완전히 바꾸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배움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됐으며 BEE를 계속할지는 모르겠으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런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이며 감사할 따름이고 성경을 읽고 성경에 대해 더 알고 싶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와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글쓴이 안선미 집사 (양재 월오전반)]



양재 온누리교회에서 예배한 지 3년 차, 부담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더 알고 싶은 만큼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를 기도하고 있다.

 우리 부부의 삶에 갑작스럽게 닥친 고난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공동체 장로님의 소개로 BEE 과정을 알게 되었다. 원래 장로님께서도 남편에게만 BEE 과정을 권유하셨지만 하나님에 대한 영적 갈급함에 목말라 있던 나는 남편과 함께 BEE 기초과정에 등록하게 되었다. ‘갈라디아서’, ‘로마서’, ‘그리스도인의 삶’까지 세 과목의 1년 과정이라는 것도, 매시간 예습과 과제가 있다는 것도 알지 못한 채 BEE와의 첫 만남이 시작되었다.

한 번도 제대로 된 말씀 공부를 해 본 적이 없는 나에게는 모든 것이 새롭고 신기하기만 했다. 특히 평신도로서 BEE의 훈련과정을 마치고 헌신적으로 수강생들을 섬기시는 인도자님들의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각자 직장과 가정에서 바쁜 생활을 하면서도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는 그 열정의 원동력이 궁금했다.



또한 함께 BEE 세미나를 듣는 형제자매님들의 깊은 믿음과 크리스천으로서의 성숙한 모습이 나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였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 속에서 헤매다가 고난 앞에 서서야 하나님께 부르짖는 나의 모습이 한없이 부끄럽고 초라해 보였다. 하지만 과정이 진행됨에 따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나를 이끄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내 마음속에 점차 자리 잡게 되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자신을 정죄하는 마음도 내려놓을 수 있었다.

BEE 기초과정의 마지막 단계인 ‘그리스도인의 삶’은 코로나19로 인해 6개월 늦게 온라인 과정으로

시작되었다. ‘로마서’ 과정을 마치고 오랫동안 성경 공부를 하지 않고 있었던 데다 직장에서의 새로운 보직과 고3인 딸을 보살피는 일 등으로 솔직히 다시 BEE 세미나를 시작할 엄두가 나지 않았다. 더구나 Zoom으로 온라인 수업을 한다는 것이 교사인 나에게도 낯설고 부담스러웠다. 하지만 이번에 ‘그리스도인의 삶’ 과정을 마치지 않는다면 다음에는 더욱 어려울 것 같았다. 더구나 같은 반 형제자매님들과 끝까지 수업을 함께 듣고 싶었다. 온라인 수업은 토론 시간이 부족하고 가끔 인터넷 연결이 원활하지 못하여 소리나 영상에 문제가 생기는 등의 단점이 있기는 했지만 점차 온라인 상황에 익숙해지며 이런 문제점들은 조금씩 해결되기 시작했다. 오히려 수업 장소로의 이동으로 인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고 ppt나 영상자료 등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



이번 ‘그리스도인의 삶’ 과정은 예상대로 직장과 가정에서의 바쁜 일정으로 예배와 과제 등을 감당하기가 쉽지는 않았지만 힘들었던 만큼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 또한 컸다. 지금의 나의 모습으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너무 멀리 있는, 도달하기 어려운 목표인 것처럼 보였지만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가려는 매일의 꾸준한 훈련들이 나의 삶 속에 쌓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이제 남은 과제는 ‘그리스도인의 삶’ 과정에서 배운 것들을 일관성 있게 매일의 삶에서 실천하는 것이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나의 삶의 자리에서 흔들림 없이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한다.

[글쓴이 손호진 집사 (목저녁반)]



개인적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영적 갈급함으로 인해 BEE를 시작하였으며, BEE 말씀 공부 등 개인적인 훈련의 과정을 통해 믿음의 온전히 뿌리 내린 가정을 이루며 일대일양육 등을 통해 초신자들의 신앙의 멘토가 되고 싶은 소망을 가지고 있다. 온누리교회에서 예배의 삶을 살고 있다.

[정리: 김옥숙 편집: 최선]

선교지 남미 콜롬비아

**국**  
**그것이 알고 싶다**



세계문학전설 34  
백년의 고독 1  
Cien Años de Soledad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 | 서울대 전임교수 100년 | 미국대학원회 선정 SAT 추천도서 | (뉴욕타임즈 선정 100대 명저) | BBC 선정 독 권위어 올해

‘미술적 사실주의의 창시자’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대표작이자, ‘소설의 속 울’에 반기를 들고 소설의 부활을 예언한 대작 라틴아메리카의 비극적 역사와 인간 조건에 대한 통찰을 유머에 녹여 낸다

**GABRIEL GARCÍA MÁRQUEZ**  
Crónica de una muerte anunciada



**[콜롬비아의 대표 작가]**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Gabriel José de la Concordia García Márquez, 1927–2014). 자신이 자란 카리브 바닷가 바나나 대농장에서의 경험이 그의 작품 속 배경이 되었다. 「백년의 고독」, 「예고된 죽음의 연대기」는 마술적 사실주의 기법으로 20세기 스페인어 최고의 소설로 찬사 받으며 1982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하였다. 1950년대부터 콜롬비아의 폭력과 부패를 피해 외국에서 살며 글로 풍자한 것이 작품으로 완성된 것이다. 최근 대농장 가업을 잇던 그의 조카 손녀가 3개월 동안 인질로 납치되었다가 군 특공대에 의해 구출되기도 하였다.

BEE 소식

- 2020년 하나님의 “준비하라”라는 음성에 따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준비하고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네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네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암4:12).”
- 코로나19의 확산이 전국적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항상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있는 그곳이 경건의 장소이며,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임을 기억하며 강건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 2021년 1월 7일(목) -2월 25일(목), 2021 BMT (BEE Missionay Training)가 있습니다. 8주간 선교사로 헌신하고 훈련받고자 하는 BEE 가족의 첫걸음을 축복합니다.

